

현대삼호重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정

고용노동부 '우수 사례 발표대회' 대상·최우수상 수상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 그동안 안전보건분야에서 수행해 온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5개 분야의 사례가 발표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안

전보건 교육훈련 경진대회' 2개 부문에 참가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기업이 본선에 참가해 각 회사별 예방활동 실적과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주요 생산품인 선박과 해양설비 등이 중량물인 철을 주요 재료로 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상세히 설명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사 공동으로 '근

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연 2차례 실시하고 있는 점과 개선 사례집을 펴내 근로자 중심의 예방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인간공학 분야의 박사·기술사 등 전문가를 양성해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작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종 개선활동과 공구 경량화 작업, 현장 스트레칭 교육, 사무실 근무자를 위한 예방체조 동영상 방영, 질환 호소자 1:1 예방관리 등 여러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훈련 경진대회'에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6개 회사가 본선에 올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조선 업종에 적합한 안전 체험관과 현장 방문교육을 위한 홍보차량 운영, 용접작업에 맞는 특성과 교육 실시 등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가꾸기 위해 수행해온 여러 활동들이 좋은 평가로 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안전문화 정착과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대성수기자 dss@

'권위'보다는 '함께'

박홍률 목포시장 '시민과 대화'

소통 행정으로 민·관 화합



민선 6기 '소통'을 화두로 삼은 박홍률(60·사진) 목포시장이 '권위'를 버리고 '함께'를 추구해왔다.

박 시장은 우선 지난 7일 취임 후 첫 확대

대간부회의에서 회의문화를 대폭 개선했다. 주 2회 열린던 간부회의를 1회로 줄이고 매주 수요일은 '회의 없는 날'로 정했다.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로 인한 업무공백과 효율성의 저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활기찬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시청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하는가하면 일과 시간 이후 행사에도 국장단의 동행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를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 시장은 '소통 행정' 실천을 위해 발 빠르게 관내 23개 동을 총 8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특히 이번 동 순시는 사전 각본에 짜여진 질의가 아닌 시민들이 민원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보고 형식이 아닌 공동 관심사와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경청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됐다.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묻는 뒤 "제일 맛있는 라면은 '시민과 함께라면'이라고 답해 참석했던 시민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테마캠프에 참가한 호남·충청권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밤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원 운동장에서 미래 결혼과 가족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원등을 날리고 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원 제공>

인구보건協, 담양서 '인구문제 테마캠프'

전국 대학생 100여명 참가

특강·소원등 날리기 진행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15~16일 1박 2일간 담양군 청소년수련원(원장 나도팔)에서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이하 Top-Us)' 호남·충청권 테마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테마캠프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충북·세종·대전·충남·제주지역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미영 광주대 교수의 '가족사랑, 꿈꾸는 Top-Us' 특강과 혼인예산서 작성, 미래 결혼과 가족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원등 날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손숙미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Top-Us를 통해 젊은층 인식변화에 앞장

서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op-Us'(Thinking Of Population issues-University Students)는 인구협회에서 지난 2009년 대학생들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 직장·사회환경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다. 현재 전국 111개 대학 총 234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전북 소식

전북 앞바다 불법 멸치잡이 극성

충남 등 타지역 어선 출몰 잦아 도, 이달까지 합동 단속 진행

전북도 수산당국이 서해안 불법 멸치 조업 대응에 나섰다.

16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산 비응도와 신시도, 아미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道界)를 넘어온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불법 멸치잡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북도 수산당국은 실제로 최근 충남 선적 어선 20여 척이 이 일대에서 때를 지어 조업하다가 전북 어선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어선이 전북 서해안 해상으로 몰

리는 이유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군산 앞바다에 멸치의 주시인 플랑크톤이 많아 멸치떼가 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지수는 멸치잡이 이들의 불법조업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어업지도선 4척을 군산 앞바다에 배치, 해경·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어업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육상 단속반도 투입해 어획물 위탁판매 및 운반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내장산 야영장, 새모습으로 개장

70동 규모...전기·샤워실 구비

인터넷 사전예약 최대 2박3일

내장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내장 야영장이 16일 개장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동안 시설개선과 업그레이드된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내장야영장은 영지별 독립구획으로 텐트 70개 등을 칠 수 있는 규모이며, 전기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1인당 최대 2박3일까지 예약할 수 있

으며 요금은 텐트 1개 동에 하루 1만 6000원이다.

운영방식도 기존 선착순 현장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사전예약제(reservation.knps.or.kr)로 변경됐다. 전화예약과 당일예약은 불가하다.

내장산국립공원 안길선 행정과장은 "야영객의 입장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정읍시 내장동 92-2, 문의 063-538-7875)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우천규 정읍시의장, 축하화환 기부

요양원 등에 80개 보내

제7대 정읍시의회 우천규(52·사진) 구·사진) 의장이 지난 15일 지역 각계에서 취임을 축하해주기 위해 보내온 화분과 화환 80여개를 산내면 들꽃요양원 등 관내 복지시설과 사회단체에 기탁했다.

우 의장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후 지인과 각계 인사들로부터 받은 축하에 감사하고, 당선의 기쁨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기 위한 차원에서 전달했다.

우천규 의장은 "이웃들이 작은 정성에도 큰 고마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음식물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주)편한세상은 분쇄 후 2차미생물 분해 소멸방식으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는 유일한 합법제품으로 100% 국산 친환경제품입니다. - 올바른 제품 선택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입니다. -

• 환경부 (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환경부인증(2013-91호)은 물론 KC인증과 전자파인증까지 받은 가장 이상적인 합법제품입니다. - 환경부 및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 KBS 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이미 KBS 등 방송3사 뉴스에서 검증 보도된 합법제품입니다.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주)편한세상은 작은 소음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처리시간 30초이내로 아주 낮은 전기료(월 500원 미만)와 자체 세척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주)편한세상은 AC모터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든 이진설치에도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주)편한세상은 그동안 주방에 모자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세균, 냄새, 벌레, 귀찮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 함으로써 가정주부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061) 245-2457 전국 설치가능